



6월 11일
금요일

보도자료



실과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 정 희	팀장	마 성 간	☎	286-6330
----	--------	----	-------	----	-------	---	----------

전남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비 136억원 지원

-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기농 중심 품목 다양화 유도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36억 원을 지원한다.

인증비는 2ha 기준 심사관리비, 출장비, 잔류농약 분석비 등 57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인증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와 인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 농가는 최대 2건까지 지원하고 단체는 건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도 벼 중심에서 과수·채소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인증단계도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상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5월 31일 기준 43,686ha이고, 유기인증이 23,365ha, 무농약인증이 20,321ha이다.